

휴가철, 전북 여름과일 어때요?

전북도도지사 김광영)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휴가객을 위한 전북 여름과일 어때 마케팅을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한다.

우선 지난 21일 전라북도 업무협약 맺은 (주)CF리테일은 고창 북분자를 활용한 간편식 시리즈를 전국 CU 편의점에 출시해, 도시락 김밥 위주로 연일 판매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전북생생장터에서 농업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정재호),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과 함께 무주 복숭아 제철제 맛 기획전을 27일부터 오는 8월 2일까지 진행한다.

지난 6월 완주 블랙라워 수박에 이어, 7월 제철제맛으로 선정된 무주 복숭아는 청정한 금강 상류가 감싸

오늘 온라인물 전북생생장터 무주 복숭아 제철제맛 기획전

내일 롯데마트 전국 10개점 전북 여름과일 대전 열려

는 '육지 속의 섬' 앞섬마을에서 재배해 아삭한 식감과 높은 당도, 짙은 향을 자랑하며, 7월 말 첫 출하를 앞두고 있다. 선착순 1,300박스 한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은 이달 27일부터 8월2일까지 전북생생장터(freshb.com) 또는 모바일앱에서 최대 40% 할인 구매 가능하며, 주문 익일 무료 배송된다.

전북 여름과일의 향연은 대형 오프

라인 매장에 이어서다.

전북도와 농협 전북지역본부는 롯데마트에서 남원 캠페리포도, 진안·무주·정읍 수박, 임실 복숭아 등 전북 여름과일 대전을 열며, 시식, 타임세일, 선물 증정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진행한다.

본 행사는 롯데마트 △수호진 매출 상위 9개점 △전주점 등 총 10개점에서 28일 오후 2시부터 오는 8월 3

일까지 진행되며, 롯데마트 전국 매장에서 전북 여름과일을 만날 수 있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우리 전북은 사남부 고창부터 동북부 무주까지 어디든 여행과 어울리는 여름 과일이 매력적인 산지"라면서, "올여름 연일 이어진 폭염 속에 잠

시나마 휴가를 즐긴다면, 전북의 여름 과일과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이하 전북농관원)은 지난 22일 전북농관원에서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전북농관원 및 6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잔류농약 분석업무 담당자 등 13명이 참석해, 상반기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정보를 공유하고 농업인 교육 등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잔류농약 분석정보 공유와 소통에 노력하고, 국제수출도 평가에 참여해 분석업무의 대외적인 신뢰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분석역량을 마련하고자 했다.

/김윤상 기자

aT,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식단관리 프로그램 집중 홍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진진)는 28일부터 2일간 대한영양사협회가 주최하는 '제2회 식품·기기전시회'에 참가해 오는 9월 오픈을 앞둔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의 식단관리 프로그램을 집중 홍보한다.

플랫폼에 구축된 식단관리 프로그램은 영양사가 급식 식재료 구매 시 선택해야 하는 식단작성, 소요량 산출, 품의서 작성 등의 제반 업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식단체로부터 식재료 구매, 정산까지 이르는 전체 프로세스를 플랫폼에서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공사는 실제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등 공공부문 현지 영양사들과 도시로 소통해 사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국내 통용되는 유사 프로그램의 장점을 벤치마킹해 영양사들에게 꼭 필요한 기능들을 담아 식단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주요 기능으로는 지역산 식재료, 친환경 등 속성코드로 구매요건 지정 등이 있다. /김윤상 기자

저온처리 이용 겨울 맥류 세대 촉진기술

세계 3대 유명 학술지 등재

품종개발 기간 단축... 신속한 육종으로 기후변화 대응

겨울 맥류를 1년에 4~5회 재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육종 기술이 개발돼 고품질 곡산 및 품종 개발 연구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내 밀 품종을 이용해 '저온처리(춘화처리) 이용 겨울 맥류 세대 촉진 기술(Speed vernalization, 이하 저온처리 이용 세대 촉진 기술)'을 지난 2019년 자체적으로 개발한 데 이어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 영국 리즈대학교와 협력해 밀·보리의 다양한 유전자원에 공통으로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음을 27일 밝혔다.

이 연구성과는 식물학 분야 세계 3대 유명 학술지인 '분자 식물(Molecular Plant)'(IF 21.949) 6월 24일 온라인판에 실렸다.

봄에 씨를 뿌리는 춘과 맥류의 세대 촉진 방법은 2018년 호주에서 개발됐다. 하지만 22시간 조명으로 낮의 길이 짧게 하는 이 방법에는 저온처리가 포함되지 않았다. 연구진이 우리나라 밀 품종 및 계통(총 60종)에 이 방법을 적용해 실험한 결과, 10종만 이삭이 빨리 나오고 나머지 50종은 생육이 촉진되지 않아 실제 품종개발 현장에서는 활용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농촌진흥청은 저온처리를 통해 봄·가을 재배에 상관없이 다양한 자원을 세대 촉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됐다.

이번에 개발된 '저온처리 이용 세대 촉진 기술'은 밀·보리를 종자 상태부

터 잎이 2~3개 나올 때까지 4주간 저온(8~10도)·22시간 조명(장일) 처리해 가을 씨뿌림(추파) 맥류의 겨울철 저온 요구도를 충족시킴으로써 이삭이 빨리 나오게 하는 기술이다.

기존 노지에서 육종 방법으로는 가을 씨뿌림 맥류를 1년에 1회 재배할 수 있어 새로운 품종개발에 13년 정도 걸린다. 반면, 저온처리 이용 세대 촉진 기술을 이용하면 봄·가을 씨뿌림 맥류 모두 씨뿌린 뒤 약 55~60일 만에 이삭이 나오고 88일 만에 수확할 수 있어 1년에 4~5회/년 재배할 수 있다. 또한 계통육성에 드는 기간이 기존보다 6년 줄어 새로운 품종개발 기간이 7년으로 단축된다.

국립식량과학원은 2022년 문을 연 밀 연구동에 이번에 개발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제어가 가능한 세대 촉진실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글루텐 특성이 우수한 빵용 밀, 아밀로스 함량을 낮춰 식감을 개선한 면용 밀 등 용도별 품종을 개발해 품질이 우수한 신품종을 신속하게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과 오기원 과장은 "우리나라는 전체 맥류 재배면적의 95% 이상에서 가을 재배를 한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성 높은 고품질 가을 씨뿌림 품종을 신속히 개발할 수 있고, 나아가 밀 자급률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제1차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2022. 7. 26(화) 60주년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차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상반기 노란우산 성과 공유 및 고객 복지사업 확대 등 하반기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소기업·소상공 대상 복지서비스 확대 방안 논의

중기중앙회 '제1차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차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상반기 노란우산 성과 공유 및 고객 복지사업 확대 등 하반기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노란우산은 지난 2007년 출범 후 15주년을 맞은 올해 7월 기준 재적기업

자 165만 명, 부금 20조 원을 돌파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인프라로 자리매김했다.

노란우산은 앞으로 소기업·소상공인 고객의 복지수요에 부응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등 법적 근거 확보를 적극 추진한다

는 계획이다.

홍석우 위원장(상대 총장)은 "이번 위원회는 노란우산의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하반기 추진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등과 관련해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노란우산 복지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은행 '하하호호페스티벌' 이벤트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자 대상 세가지 방식으로 진행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경민)가 오는 8월 28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하하호호 FESTIVAL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총 700명을 초청하며,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벤트1 '날마다 여름'은 이벤트 기간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가입하고, 농협은행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자동 응모된다. 해당 고객 중 총 550명을 초청하여 삼삼김치냉장고(1명), 매

직제품제빙기(5명), 문화상품권(100명), 스타벅스 커피쿠폰(44명)을 제공한다

이벤트2 '누리자 여름'은 이벤트 기간 중 비대면채널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가입하고 해당 채널에서 응모한 고객 중 총 100명을 초청하여 해외론 상품권을 제공한다.

이벤트3 '즐거자 여름'은 농협은행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한 고객 중 무더운 여름 시원한 여름 나기 방법을 댓글로 남기면 응모할 수 있



다. 해당 고객 중 50명을 초청하여 베스킨라빈스 패밀리 아이스크림을 제공한다. 이벤트 1, 2, 3은 중복 당첨이 가능하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이나 인터넷·스마트뱅킹, 윌뱅크의 이벤트 페이지와 고객행복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LX, 부산 영도서 고정밀 영상 지적재조사 시연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가 이번엔 고정밀 영상 기반의 지적재조사 가속화로 '디지털 국토 완성'에 박차를 가한다.

LX공사는 26일 지적재조사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시범 사업지 중 하나인 부산시 영도구를 방문해 첫 시연을 진행했다.

그동안 지적재조사는 드론·라이다·360°VR 기술 등 고정밀 영상을 적용하여 다양한 시범사업을 수행, 사업 효율화에 노력해왔다.

기술을 활용하여 고정밀 3D데이터의 △구축 △분석 △활용 등을 거친 '고정밀 영상 기반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드론, 헬기, 항공기 및 차량 MMS 라이더와 파노라마 VR 입체 영상을 활용해 3m급 고정밀 3D데이터를 구축하고, 실시간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활용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토지정보·측량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LX공사는 네이버의 거리뷰 서비스를 제공해 (주)우에이와 함께 오는 12

월까지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자체와 국민들에게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측량 작업규정(안) 제정을 지원, 지적재조사의 효율화와 국민 편의를 높여나간다는 복안이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된 LX공사는 사업 가속화를 위해 고정밀 영상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고품질 성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이 시스템을 정부, 지자체가 보유한 공공 데이터와 연계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콘텐츠 창업봄 조성'

전북도 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창작·창업 캠프'
내달 26일부터 3일간



발표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콘텐츠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대학생 및 예비 콘텐츠 창업자라면 누구든지 참가가 가능하며 8월 12일 금요일 17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콘텐츠코리아랩 누리집(www.jonbukdc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수 기자

소통의 기회와 한단계 성장 할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참가접수는 도내 콘텐츠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대학생 및 예비 콘텐츠 창업자라면 누구든지 참가가 가능하며 8월 12일 금요일 17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콘텐츠코리아랩 누리집(www.jonbukdc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수 기자

전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원장 최용석)은 전라북도콘텐츠코리아랩의 사업의 일환으로 콘텐츠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콘텐츠 창업봄 조성을 위해 '콘텐츠 창작·창업 캠프' (이하 캠프)를 8월 26일부터 3일간 군산케이비호텔에서 진행한다.

이번 캠프는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며 전문가 특강은 전라북도콘텐츠코리아랩 유튜브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다.

캠프 프로그램은 창업 전문가 강연, 전문가 멘토링, 참여 이벤트